SUKHAVATI

THE 10TH ANNIVERSARY EDITION 2023. 03 VOL. 77

승격 원년 노리는 FC안양 10주년서 100주년으로

본 매거진은 국민체육 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UKHAVATI

THE 10TH ANNIVERSARY EDITION 2023. 03 VOL. 77

04 THE 10TH ANNIVERSARY PROLOGUE : 2023 SEASON RESTART!

06 THE 10TH ANNIVERSARY REPORT 1 - THE HISTORY OF ANYANG 1 2013~2017: 쉽지 않았던 초반 5년... 견디고, 버티며, 성장했던 FC 안양

08 THE 10TH ANNIVERSARY INTERVIEW 1 - THE MEANING OF ANYANG : 백동규(DF)

10 THE 10TH ANNIVERSARY REPORT 2 - THE HISTORY OF ANYANG 2 2018~ : 우여곡절을 견디며 K리그2 강호로 자리 잡은 FC 안양

12 THE 10TH ANNIVERSARY INTERVIEW 2 - THE MEANING OF ANYANG : 김정현(MF)

14 2023시즌 FC 안양 코치진 & 선수 명단

15 2023시즌 FC 안양 연간 경기 일정표

FOOTBALL CLUB ANYANG

대표	최대호
사업자등록번호	138-82-06718
TEL	031-476-3377
FAX	031-476-2020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내 (13918)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ALL RIGHTS RESERVED

2023 SEASON **RESTART!**

2023시즌은 FC 안양이 창단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그리 시간이 흘렀다니, 세월 참 빠릅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선수단 사진을 보더라도 세월의 변화가 보입니다.
이우형 감독이 이끄는 FC 안양이 또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이우형호가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오뚝이처럼 불굴의 의지를 발휘,
지난 시즌 아쉽게 놓쳤던 승격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수카바티(SUKHAVATI), 안양!

THE 10TH ANNIVERSARY REPORT

THE HISTORY OF ANYANG 1

2013~2017 : 쉽지 않았던 초반 5년... 견디고, 버티며, 성장했던 FC 안양

FC 안양은 안양 축구팬들의 간절함이 만든 팀이다.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떠나버린 '그 팀'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았다.
'진정한 안양의 축구팀을 창설해 보란 듯이 K리그로 돌아가 다시금 안양을 뜨겁게 만들어 보자.'
시민의 열망이 한데 모여 안양을 탄생시켰다. '강산이 변한다'는 십 년이 흐른 지금,
안양은 이제 남부럽지 않은 클럽으로 성장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첫 5년은 K리그의 드높은 수준을 온몸으로 새기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대신 그 아픔을 자양분 삼아 부지런히 성장했다.

2013~2015: 나쁘지 않은 출발, 중위권에 안착

안양의 부활은 축구계 내 시대적 요구의 부응이 크게 도움이 됐다. 2013시즌 K리그가 승강제를 도입하면서 2부인 K리그2에 출전할 팀을 모집한 게 계기였다. 거의 1년 간 시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벌인 끝에 2013시즌 K리그에 도전하기로 의결했다. 2013년 2월 2일 창단식은 여러모로 역사적 의미가 큰 날이다. 안양 LG 치타스가 서울로 연고 이전하며 안양 팬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날이기 때문이다.

안양은 창단 선언을 통해 안양 축구의 부활을 알렸다. 팬들의 열기와 사기가 얼마나 드높았을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성싶다. 이우형 감독의 지휘하에 도전한 2013시즌, 안양은 35전 12승 9무 14패의 전적으로 5위(승점 45)에 올랐다. 참고로 K리그2가 탄생한 후 프로 무대에 처음 무대에 도전했던 5개 팀(안양·부천 FC 1995·고양 HI FC·충주 험멜·수원 FC) 중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던 출발이었다. 당시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는 플레이메이커 최진수였다.

최진수는 2013시즌 염기훈에 이어 도움 2위(10개)를 기록하며 중심 선수로서 맹활약했다.

2014시즌은 더 의미가 크다. 이해에는 K리그1에서 강등당한 3개 팀(대전 시티즌·강원 FC·광주 FC)까지 상대해야 했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한 차원 높다'라고 평가하며 겁을 먹었던 팀과 진검 대결에서도 안양은 밀리지 않았다. 2014시즌엔 5위를 차지했는데, 승격 플레이오프 막차인 4위에 오른 광주에 골 득실에서 살짝 밀린 순위였다. 참고로 이해 광주가 4위 승격의 전설을 썼던 걸 떠올리면, 그 기적이 안양의 몫이 됐을지 모를 일이다. 2015시즌은 쉽지 않았다. 초반 18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이우형 감독이 시즌 도중 경질됐다. 이후 이영민 감독대행 체제로 가면서 전반기를 최하위로 마쳤다. 여러모로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후반기 반등하며 6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그래도 이 세 시즌을 통해 K리그2에서 무시 못 할 '다크호스'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2016~2017: 힘든 고난을 겪어야 했던 시기

하지만 2016시즌부터 안양은 침체기로에 들어섰다. 이영민 감독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고 임한 2016시즌에는 11개 팀 중 9위에 랭크됐다. 이는 2020시즌 9위와 더불어 안양의 창단 후 최저 순위로 남아있다. 어떻게든 중위권에는 갔던, 그리고 행운이 따랐더라면 승격을 노려볼 '가을 전쟁'으로 향할 기회도 넘볼 수 있었던 이전 3년. 그때를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은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최종 순위로 모든 평가를 하기에는 시즌을 치러오며 겪었던 과정이 나쁘지 않았다. 그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 안양은 당시 기준으로 구단 최다였던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등 시즌 중반엔 승격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5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생각지도 못한 침체에 빠져 순위가 내려가고 말았다. 2015시즌처럼 장기간 무승의 늪에 빠진 게 원인이었다.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 3년간 공격 찬스를 책임졌던 최진수의 공백이 꽤 크게 작용했다. 팀 내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시켰던 김민균의 페이스가 후반에 떨어진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2017시즌에는 김종필 감독 체제로 변화를 꾀했다. 이해 최종 순위는 7위였다. 골과 도움할 것 없이 주어진 몫을 확실히 해낸 2년 차 루키 미드필더 정재희의 성장이 볼 만한 시즌이었다. 순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긴 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개막 후 3연패라는 악재를 딛고 서서히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듯했던 안양은 7월 이후 단 4승에 그치고 말았다. 전반기에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기에 흔들렸던 징크스가 3년째 되풀이된 셈이다. 하지만 경기 외적으로는 의미를 둘 만한 기록을 세웠다. 2017시즌 K리그2에서 최다 관중(6만 78명/경기당 3,338명)을 모객했다. 이는 전년도(3만 6,530명/경기당 1,827명)이 비해 82.7%가 늘어난 수치였다. 성적을 떠나 해를 거듭할수록 안양 축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라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2013-2017시즌 FC 안양 K리그2 전적 및 순위

시즌	순위	승점	경기	승	무	패	득점	실점
2013	5	45	35	12	9	14	50	51
2014	5	51	36	15	6	15	49	52
2015	6	54	40	13	15	12	53	52
2016	9	46	40	11	13	16	40	53
2017	7	39	36	10	9	17	40	58

시즌별 FC 안양 팀 내 개인 기록 1위(정규 라운드)

시즌	최다 득점 선수	최다 도움 선수	최다 출전 선수
2013	최진수 외 3명 (6골)	최진수 (8도움)	박성진 (32경기)
2014	박성진 (8골)	최진수 (8도움)	김태봉 (35경기)
2015	고경민 (15골)	최진수 (7도움)	주현재 외 2명 (36경기)
2016	김민균 (11골)	안성빈 (5도움)	김민균 (38경기)
2017	정재희 (8골)	정재희 (5도움)	정재희 (35경기)

THE 10TH ANNIVERSARY INTERVIEW 1

THE MEANING OF FC ANYANG

"안양은 A.S.U. RED가 곧 전술이다!"

DF
NO. 30 백동규

Q1 오래전부터 안양에서 뛰었습니다. 그때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나요?

"당연하죠. 홈개막전에 이우형 감독님이 프로 데뷔전 기회를 주셨던 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때는 공격수로 들어갔어요(웃음). 이 감독님은 처음 보는 타입이었어요. 그전까지의 선생님들은 왠지 무서웠는데, 감독님은 유독 '농담'을 많이 하셨어요. 제겐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절 안양으로 뽑아주신 분도 감독님이에요."

Q2 백동규에게 안양이란?

"삶의 터전. 저는 안양 덕분에 밥을 먹고 삽니다. 안양에서 나오는 돈으로 자식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안양은 저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고의 구단입니다. 얼마 전엔 안양 10주년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라는 수식어는 왠지 낯설지만... 무엇이 됐든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거 같아요."

Q3 안양 레전드 중 한 명이니 팬들을 향한 기억도 특별할 거 같습니다.

"'우리 팬'들은 평일 저녁에 비가 오는데도 제주 유나이티드 원정까지 와줍니다. 비를 맞으며 응원을 해주시던 모습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잘하지 못해도 따듯하게 안아주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상대 팀들엔 좀 거칠게 다가갈 수 있어요(웃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안양은 A.S.U. RED가 곧 전술이다!"

Q4 안양과 함께 1부리그로 승격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생각뿐입니다 안양 팬들에겐 응원하던 팀이 사라진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팬들을 위해 팀을 위로 올려놓는 게 당연한 거 같아요. 열정의 안양 팬들이라면 더 높은 리그,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경기장에서 응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선수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Q5 지난 시즌 마치고 선수단이 의기투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을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오갔어요. 그간 서로가 서로에게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선수들은 물론, 프런트들도 함께요. 원래 아침 등산도 가려고 했는데 다들 밤늦게(?)까지 있느라 산은 못 갔어요(웃음). 당연히 이번 시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스스로 깨우친 것도 많고요. 좋은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개인의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THE 10TH ANNIVERSARY REPORT

THE HISTORY OF ANYANG 2

2018~ : 우여곡절을 견디며 K리그2 강호로 자리 잡은 FC 안양

이제 FC 안양은 어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팀이 됐다.
최근 K리그2(2부) 상위권을 지킨 적이 많았다. 1부 리그(K리그1) 승격에도 꾸준히 도전했다.
상승 곡선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 '반짝' 활약에 그치지 않아 고무적이다.
그동안 강한 비바람을 견뎌오며 내공을 쌓은 덕택이다. 팬들은 이제 안양의 1부 리그 승격을 염원하고 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라고 하지 않던가.
안양은 팀 창단 10주년을 맞은 올해도 꿋꿋하게 승격에 도전한다.

2018~2020: 기쁨과 아픔이 번갈아 찾아온 '격변기'

안양은 2018시즌 격변기를 겪었다. 고정운 감독 체제에서 개막 후 11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한 것이다. 불안한 출발을 한 안양은 5월이 돼서야 첫 승을 신고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을 안양이 아니었다. 거짓말처럼 이후 11경기에서 6승 2무 3패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만족스러운 성적과 함께 경기력도 따라왔다.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탈바꿈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한 끝에 6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2018시즌의 아픔은 결과적으로 다음 시즌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됐다. 안양은 남다른 각오로 2019시즌에 임했다. 김형열 감독을 선임해 팀을 재정비했고, 초대 감독 이우형 감독도 전력 강화부장으로 합류해 힘을 보탰다. 경기 외적으로도 변화를 감행했다. '열정' 하면 어느 팀에 견주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안양 팬들. 이들의 힘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장 3면에 가변석까지 설치했다.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간격을 좁힌 가변석은 안양의 명물이다.
때마침 실력 있는 선수들까지 대거 수급되면서 팀을 든든하게 받쳐줬다. 안양이 발굴한 '한국 축구의 자산' 조규성이 신인으로 합류했고, 팔라시오스와 알렉스 등 외국인 선수들까지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조규성은 데뷔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14골을 몰아쳤다. 리그 개인 득점 10위 안에 조규성·알렉스·팔라시오스 셋이나 속했으니, 가히 '최고의 해'라 일컫을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양은 2019시즌 FA컵 32강에서 전북 현대를 꺾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뿐 아니라 구단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리그는 3위로 마무리해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이 역시 구단 역사상 최초였다. 누구보다 반짝였던 안양은 겨울 이적시장에서 주요 타깃이 됐다. 조규성과 팔라시오스 등 핵심 선수들을 떠나보냈다. 그로 인해 2020시즌은 참 아픈 한 해가 됐다. 9위로 시즌을 마쳤고, 김 감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팀을 떠났다.

2021~2023: 지금 안양은 승격을 향해 '순항 중'

실패를 맛본 안양은 2021시즌을 앞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새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부터 '초심'으로 돌아갔다. 안양의 초대 감독이었던 이우형 감독을 선임했다. 주현우·심동운· 조나탄 모야 등 실력 있는 선수들까지 품었는데, 이들은 지금도 안양의 주축으로 활약한다. 이 감독은 짧은 패스 플레이를 활용한 공격 축구를 구사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선수단을 다루는 리더십도 발휘했다. 여기에 조나탄이 14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 2위를 차지했다. 조나탄은 조규성이 떠난 뒤 아쉬움으로 남았던 해결사 부재로 인한 갈증을 말끔히 해소했다. 실력 있는 지도자와 확실한 해결사, 여기에 끈끈한 팀 스피릿까지 갖춘 안양은 2021시즌 2위(정규리그 36R 기준)에 오르며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새로 썼다.

이 감독 체제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안양은 2022시즌 공격적 영입을 단행했다. 이창용·김륜도·백성동 등 실력 있는 알짜배기 선수들을 영입했다. 직전 시즌 팀 공격을 주도했던 조나탄을 '완전 영입'했다. 3위로 리그를 마친 안양은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경남 FC를 제치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비록 승격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수원 삼성에 밀려 좌절됐지만, 두 시즌 연속 승격에 도전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안양은 칠전팔기 정신으로 다시 승격에 도전한다.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지난 10년간 그랬듯이 안양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멋진 '새 옷'도 마련했다. 안양은 올 시즌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유니폼을 제작했다. 방패형 엠블럼 등 창단 시즌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만든 클래식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이다. 안양은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을 통해, 지난 10년간 이어온 굳건한 팀 정체성을 이어가고 빛나는 역사를 써 내려가겠단 각오다.

2018-2022시즌 FC 안양 K리그2 전적 및 순위

시즌	순위	승점	경기	승	무	패	득점	실점
2018	6	44	36	12	8	16	44	50
2019	3	55	36	15	10	11	63	50
2020	9	25	27	6	7	14	27	38
2021	3	62	36	17	11	8	51	37
2022	3	69	40	19	12	9	52	41

시즌별 FC 안양 팀 내 개인 기록 1위(정규 라운드)

시즌	최다 득점 선수	최다 도움 선수	최다 출전 선수
2018	알렉스 (15골)	채광훈 (4도움)	마르코스 외 1명 (33경기)
2019	조규성 (14골)	김상원 (8도움)	최호정 외 1명 (33경기)
2020	아코스티 (7골)	구본혁 외 1명 (3도움)	닐손주니어 (26경기)
2021	조나탄 (13골)	주현우 (8도움)	주현우 (36경기)
2022	조나탄 (9골)	아코스티 (11도움)	주현우 외 1명 (40경기)

THE 10TH ANNIVERSARY INTERVIEW 2

THE MEANING OF FC ANYANG

"작년에 흘린 눈물, 올해는 기쁨의 눈물로 만들어 드릴게요."

MF

NO. 6 김정현

Q1 지난 시즌 임대 후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부주장까지 맡아 책임이 막중할 것 같아요.

"작년에 다쳐서 마지막 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수원 삼성에 한 경기만 이기면 K리그1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좌절했죠. 벤치에서 아쉬움을 봤어요. 올해는 무조건 승격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완전 이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구단에서 (백)동규 형에게 엄마 역을, 제게는 아빠 역을 맡겼어요. 후배들에게 잔소리요? 팀을 위해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안양에서 긴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10주년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양의 10주년을 정말 축하합니다. 아무래도 팀에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보니, 올해에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안양이 1부 리그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K리그1으로 승격해서 위대한 구단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승격 멤버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Q3 이적해 온 선수들은 안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실제 겪어보니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해 처음 팀에 왔을 때 느꼈던 건데요. 물론 원래 아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어요. 이우형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예하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Q4 김정현에게 안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안양은 터닝 포인트예요. 부산 아이파크 시절에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서른 살이 넘어가고, 주위에서 하나둘 은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양에 오고 나서 되게 잘 풀렸죠. 올해에도 정말 좋은 활약을 해서 팀을 승격시키고 장기 계약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웃음)."

Q5 '안양' 하면 열정적인 팬이 자랑입니다. 팬 자랑, 마음껏 해주세요.

"최근에 홈에서 무려 1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소녀 팬이 있었어요. 저희가 라커룸에서 늦게 나왔거든요. 추운데 오래 기다리고 계셔서 사인을 해드렸어요. 저 같은 스타일을 학생 팬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놀랐습니다. 또 저희 팬들은 1부 기업 구단 팬 못잖은 응원 열기가 있어요. 힘이 나죠. 올해 정말 매 경기 간절하게 뛰어서, 작년에 흘린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FC ANYANG SQUAD

STAFF

이우형 감독

유병훈 수석코치 | **김연건** 코치 | **최익형** GK코치 | **김성현** 피지컬코치 | **서준석** 의무팀장 | **황희석** 재활트레이너

신영재 재활트레이너 | **노상래** 통역 | **주종환** 장비관리사 | **김성주** 전력분석관 | **조해원** 실장 | **주현재** 스카우터

PLAYER

GK

1 박성수 | 21 김태훈 | 23 김성동

5 박종현 | 15 김형진 | 20 이상용 | 22 김동진 | 25 김하준 | 30 백동규 | 32 이태희 | 40 연제민

77 전보민 | 83 윤준성 | 90 구대영 | 99 주현우

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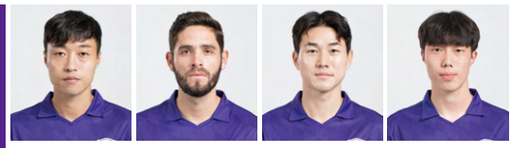
2 정준연 | 3 박경빈 | 4 이창용

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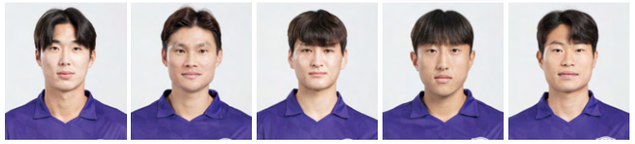
6 김정현 | 8 황기욱 | 10 안드리고

FW

14 홍창범 | 26 김정민 | 28 문성우



7 안용우 | 9 조나탄 | 11 조성준 | 13 이재용



16 박재용 | 18 김륜도 | 19 양정운 | 24 최성범 | 27 홍현호

2023 FC ANYANG SEASON FIXTURES

3 MARCH

1R. 03/01(수) 13:30 전남 [A]
2R. 03/05(일) 16:00 서울E[H]
3R. 03/12(일) 13:30 안산 [A]
4R. 03/19(일) 16:00 성남 [H]

4 APRIL

5R. 04/01(토) 13:30 충남아산[H]
6R. 04/08(토) 16:00 부천 [A]
8R. 04/18(화) 19:30 경남 [A]
9R. 04/22(토) 13:30 김포 [H]
10R. 04/29(토) 18:30 충북청주[H]

5 MAY

11R. 05/02(화) 19:00 천안 [A]
12R. 05/07(일) 16:00 부산 [H]
13R. 05/13(토) 16:00 김천 [A]
14R. 05/20(토) 18:30 전남 [H]
15R. 05/27(토) 18:30 성남 [A]

6 JUNE

16R. 06/03(토) 20:00 부천 [H]
18R. 06/25(일) 18:30 서울E[A]

7 JULY

19R. 07/02(일) 18:30 경남 [H]
20R. 07/08(토) 18:00 충북청주[A]
21R. 07/15(토) 20:00 충남아산[A]
22R. 07/18(화) 19:30 천안 [H]
23R. 07/24(월) 19:30 부산 [A]
24R. 07/31(월) 19:30 김천 [H]

8 AUGUST

25R. 08/05(토) 20:00 김포 [A]
26R. 08/12(토) 19:00 안산 [H]
28R. 08/27(일) 19:00 전남 [H]
29R. 08/30(수) 19:30 충북청주[A]

9 SEPTEMBER

30R. 09/03(일) 20:00 부산 [H]
31R. 09/17(일) 16:00 충남아산[A]
32R. 09/20(수) 19:00 경남 [H]
33R. 09/23(토) 16:00 김천 [A]
34R. 09/30(토) 13:30 성남 [H]

10 OCTOBER

35R. 10/07(토) 18:30 김포 [A]
36R. 10/21(토) 16:00 부천 [A]
37R. 10/28(토) 18:30 서울E[H]

11 NOVEMBER

38R. 11/12(일) 13:30 안산 [A]
39R. 11/26(일) 15:00 천안 [H]

2013 - 2023
10TH ANNIVERSARY

OHC OSANG HEALTHCARE

오늘의 일상도 걱정없이

ENHANCE YOUR EVERYDAY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생화학, 면역, 분자 진단 분야에서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여개 국가의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해 세계 각 국의 고객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더 나은 일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편한 검사와 신속한 진단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순간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하여 오늘의 안심과 내일의 기대, 일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합니다.